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화,수,목,금 아침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6/8)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778.93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5.6.15 (608호)

말씀묵상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김주연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17:1-4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용서의 시간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6월 22일	6월 29일
전주은	이우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부자와 나사로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일컫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부자들이 많이 등장하기에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등 당대 최고의 부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에도 아리마대 요셉, 자주장사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등 당대에 재력가들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부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앞에서부터 살펴 보았던 15장 잃은 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연결선상에서 결론으로 주어지고 있는 비유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하신 이 비유의 결론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 또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의로 충분한 자들을 일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회한들 때는 늦었습니다. 주님의 공훈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죽은 자를 보내서 회개케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 복음을 전한다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선택과 경륜 속에서 이뤄지는 신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죄인으로 거지로 내 몰려 가는 인생이 은혜를 입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꾸 얻으려 하기 보다 잃어 버림에 익숙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알게 되는 통로가 됨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